



한마음도서관 이야기

Hanmaum Library Story



여러분의 꿈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발행 : 거창군

발행일 : 2016년 12월 30일

주소 : (5013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6길 11

전화 : 055-940-8470

<http://library.geochang.go.kr>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에 기초하여 장서보유량 12만권 달성



거창군평생교육센터 소장
유태정

한마음도서관은 개관 10주년과 함께,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에 기초하여 장서 보유량 12만권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지역사회와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광범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도서관 자원을 갖추고 군민들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서관의 역할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장소이자, 문화적 격차를 좁히는 공간이어야 하기에, 어린이들은 꿈을 키우고, 청소년들은 미래를 준비하며 장년과 노년층은 지식을 얻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 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의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과 독서능력 배양을 위해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 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 대상 **방학특강과 토요특강** 그리고 성인 대상 **상·하반기 문화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2016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여 지역민의 인문소양을 넓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을 계속 넓혀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은 무조건 조용해야 하고, 공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틀에 얽매어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언제든지 부담 없이 들르고 싶은 곳, 언제나 찾아오기만 하면 즐길 거리가 있어 참여 가능한 곳, 즉, **차별 없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개방적인 도서관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한마음도서관의 모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한마음도서관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매년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꾸준히 기획하고 선보여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도서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창조적인 도서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도서관의 발자취를 담아서 **‘한마음도서관 이야기’**란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통권

18

Vol.18
December
2016

Contents



2 여는 글

3 CONTENTS

4 도서관 특색사업

- 종합자료실 개관시간 연장사업
- 그림책으로 떠나는 중국여행

6 도서관 공모사업

- 2016년 길 위의 인문학

8 도서관 행사 갤러리

-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는 도서관 행사



12 이용자 후기 / 채영현

- 행복했던 그 순간, 길 위의 인문학

14 2016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16 책 & 영화이야기

18 도서관 NEWS

- 행복을 더하는 한마음도서관

20 도서관 에티켓

21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22 도서 기증자



library.geochang.go.kr

한마음도서관이야기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자료실 개관시간 연장

도서관이 한 발짝 더 나아가 사람들이 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즐기고 놀 수 있어서,
스스럼없이 찾아오는 도서관이 바로 우리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종합자료실 이용이 힘든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2016년
1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평일(월~목) 야간 10시까지**
종합자료실을 연장 운영합니다.

특히 문화의 날과 연계하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2배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1인 10권(기존 대출도서
권수 포함)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자료실은 야간대출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관시간 연장 야간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일환으로 공연,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야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밤의 동화축제로 야간에 빛그림책 세 편, 명작동화의 교훈을 담은 인형극 『양치기 소년 시로』와 매직쇼를 결들인 공연은 아이들의 폭발적인 환호성과 함께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림책으로 떠나는 중국여행



그림책을 통해 중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해 친밀감을 형성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중국 원어민 왕홍메와 황찬의 자원봉사로 운영하였습니다.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참여하여, 215명이 그림책으로 중국여행을 하였습니다.

2016년 한마음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명 덕유산 맑은 바람, 문화의 길을 묻다

추진목적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에 에둘러진 거창의 곳곳에 스며든 길을 찾아 인문학적
감성 확산을 통하여 알기 쉬운 '길 위의 인문학' 접근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6. 4. ~ 10.
사업내용 :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과 지역전문가를 연계한 강연과 탐방을 접목하여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발굴
사업실적 : 총 9회, 254명

1차 정혜정

강연1. 문화의 주인은
누구인가?

일본 메구로가조엔을 통해 본
조선 나전공예의 흔적

강연2. 문화의 길을 묻다.

도시자로 이어진 조선에서
일본으로 난 길

탐방3. 도시자로 이어진
조선에서 일본으로
난 길.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16년 길 위의 인문학 탐방길

덕유산 맑은 바람 문화의 길을 묻다

길 위를 걸으며 산천에 뿌리내린
옛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사람들.
발걸음마다 책장을 넘기듯 한걸음 한걸음마다
행복한 기억을 남겼다.



1차 탐방(7.2.토)

강진청자박물관, 한국민화뮤지엄, 백련사, 담양소쇄원



2차 이이화

강연1. 사회적 책임을
다한 세계 명문가

강연2. 청량한 바람같은
우리 명문가

3차 이경재

강연1. 거창 문화예술인
이야기

경남 북서부 중심 분지에 놓인
독특한 거창 예술인들의 이야기

강연2. 판소리와 어울린
우리 문화

판소리에 녹아든 우리문화를
여러 갈래로 접근

탐방3.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공존하는
남원답사

후속모임 (이이화, 주영환)

‘덕유산 맑은 바람 문화
의 길을 묻다’란 주제로
참가자 토론 및 정지영 영
화감독과 함께

3차 탐방(10.22.토)

송흥록 생가, 남원 광한루, 만복사지, 혼불문학관



후속모임(10.29.토)

거창사건추모공원, 오일칠양모루 언덕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는 도서관 행사

2016년 작가초청강연회 →

나희덕 시인 초청강연회

시와 삶은 어떻게 만나는가?

본 비영리민간단체는 수익금의 일부가 후원자에게 사용됩니다. (출판권, 저작권, etc.)

나희덕 시인 초청강연회
시와 삶은 어떻게 만나는가?

- 일 시: 2016. 4. 23. (토) 오후 2시 ~
- 장 소: 한마음도서관 3층 시청각실
- 대 상: 청소년, 성인
- 인 원: 80여명
- 접수기간: 2016. 4. 6. (수) 오전 9시부터 ~ 4. 23. (토) 오후 1시까지
- 접수방법: 도서관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나희덕 (시인, 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대학원 박사 졸업
-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 (1989)
- 《창작과 비평》, 《문학평론》 편집위원 역임
- 김수영문학상, 천리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이산문학상, 비평문학상 등 다수
- 현재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및 인문학연구원 원장
-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시 수록 및 대입수험시험 출제

저서
그녀에게 / 뿌리에게 / 마흔 물고기처럼 / 그 말이 앞을
몰랐었다 / 그 곳이 멀지 않다 / 여두위진다는 것 /
사라진 손바닥 /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 반쯤의 물 /
저 불빛들을 기억해 등 다수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여행작가 태원준 강연회

어머니와 함께한 500일간의 세계일주

여행작가 태원준 강연회
주제: 어머니와 함께한 500일간의 세계일주

태원준
- 경희대학교 경영학 & 신문화융합 전공
- EBS 세계태아기행: '남미의 심장, 볼리비아'
- KBS 강연 100도씨
- EBS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동남아시아 아시안 기행'
- NGC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픽이 트레블 라이브'
- KBS TV, 책을 보다 외 다수

저서
"엄마, 일단 가고돌시다", "엄마, 결국은 해피엔딩이야", "엄마, 내일강에 날아가자!"

태원준 작가
책을 가계오면
사인해 드립니다.

- 일 시: 2016. 9. 3. (토) 오후 2시 ~
- 장 소: 한마음도서관 3층 시청각실
- 대 상: 거창군민 누구나
- 인 원: 100여명
- 접수기간: 2016. 8. 22. (월) 오전 9시부터 ~ 8. 28. (일)
- 접수방법: 도서관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제52회 도서관주간 행사는 「나희덕 작가초청강연회」를 비롯한 6개의 프로그램을, 독서의 달 행사로 여행작가 태원준 강연회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분기별 작가초청강연회를 통해 연중 4회의 다양한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어린이 공연 및 각종 전시 등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융합 · 소통이 교류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4월, 9월 도서관 행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활동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 또는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정모 작가초청강연회
“진화와 인간의 미래”
 인공지능, 과연 우리의 미래인가?

이정모
 - 연세대학교 동대학원 생화학 전공
 - 독일 본 대학교 유거해학 연구
 - 안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서대문구연서박물관 관장 역임
 - 현재 서울시립과학관장

저서
 - 『과학자와 미나는 어떤 카스카르 역전?』
 - 『빅데이터의 신비로움』, 『유전자에 대하여』
 - 『갈라파 고향』, 『공생발생진화』, 『진화』
 - 『민간이역사』, 『메트리아의사』, 『우라발 옮김』

“영광과 영광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강연입니다.”

2016. 11. 12.(토) 오후 2시~5시

| 접수기간 | 2016. 10. 25.(화) ~ 11. 11.(금)
 | 접수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장 소 | 한마음도서관 3층 시청각실
 | 대 상 | 청소년, 성인
 | 인 원 | 80여명
 | 문 의 | ☎ 050-940-8470/8476

이정모 작가 초청강연회

진화와
인간의 미래
인공지능,
과연 우리의
미래인가?



한상덕의 거지인문학 강연회
거지(巨智) 인문학, 강희(講戲)

일 시 2016. 12. 6.(화) 저녁 7시 ~ 9시
장 소 한마음도서관 3층 시청각실
대 상 성인, 청소년 80여명
신청기간 2016. 11. 22.(화) ~ 12. 6.(화)
신청방법 도서관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한상덕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방송출연**
 KBS (생생투데이), MBC (생방송전국시대),
 EBS (세계문화를 아틀라스), SBS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KTV (출연다큐) 등 다수

*** 수상경력**
 경상대학교 제1회 길 가르치는 교수상 (2010, 2011)
 개척 강의상 (2015), 교육기부 표창 (2014)
 경남인재개발원(구, 공무원연수원) 베스트강사 도서상 (2014)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http://library.gmcheong.go.kr> 문의전화 ☎ 940-8470, 8476

한상덕 거지 인문학 강연회

거지(巨智)
인문학,
강희(講戲)

“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보고 빌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융합되어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

사람책 열람행사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소통과 공감의 만남, 휴먼라이브러리 사람책



어린이공연

노래와 함께 재미있고 생동감 넘치는공연



작품전시회

꽃꽃지수 수강생 작품 전시회와
두근두근 1학년 선생님 사로잡기 그림전시





① 꿈이 피어나는 변화의 시기 - 김성윤 사람책



② 강력범죄자의 심리를 통해서 본 안전요령 - 문남용 사람책



③ 꿈꾸는 사람 - 유자균 사람책



① 어린이 샌드아트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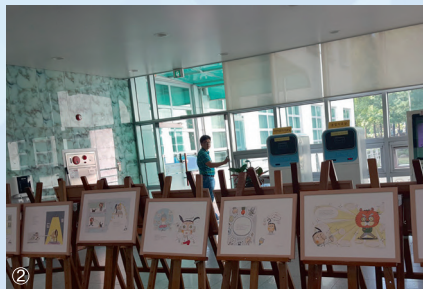
② 양치기 소년 시로 공연1



③ 양치기 소년 시로 공연2



① 꽃꽃자수 수강생 작품 전시회



② 두근두근 1학년 선생님 사로잡기 그림전시1



③ 두근두근 1학년 선생님 사로잡기 그림전시2

행복했던 그 순간,

길 위의 인문학 여행



채영현

탐방 여행의 행복했던 순간순간을 한 자락의 추억으로 만들어 준 ‘2016 길 위의 인문학’과 이별했다. 내년에도 인문학 여행을 하고 싶다. 내년에도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거창군민들을 불러주길 바란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을 읽는 곳이므로 조용한 느낌이 드는 공간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도서관에 가보면 단순히 책을 빌리거나 읽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여는 곳이란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인문학 부흥을 꿈꾸며 2013년에 시작된 ‘길 위의 인문학’ 행사는 전국의 많은 도서관이 참여해 역사·철학·문학·예술 등 인문학 관련 책 추천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의 눈높이 강연과 함께 주제와 연관된 지역이나 체험시설을 답사하는 현장 탐방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작년에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에서 운영한 이 행사에 참여했다. 그때의 매력적이고 행복했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올해도 참여하였다.

제1차 길 위의 인문학은 강연 2회와 탐방 1회로 운영되었다. 정혜정 강사의 ‘문화의 주인은 누구인가?’와 ‘문화의 길을 묻다’ 강연을 듣고, 강연 주제와 관련된 전남 강진 일대를 탐방했다.

강진으로 가는 7월 2일 토요일,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곳은 날씨였지만,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그 자체였다.

처음 찾은 곳은 강진 청자박물관. 통일신라 후반기부터 고려 말까지 청자를 굽던 자리에 세웠다고 한다. 고려청자의 시작부터 발전, 쇠퇴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박물관 바로 옆에는 기존에 발굴된 고려청자 도요지 2기와 현재 청자를 만드는 작업장이 나란히 있어 청자의 역사를 한눈에 보았다. 청자 전시 판매장을 둘러 본 후, 근처에 있는 한국민화뮤지엄으로 갈 때는 기어이 장대비가 쏟아졌다. 민화전문해설사의 재미있고 유익한 해설을 들으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전시된 민화를 감상했다. 특히, 성인전용 춘화 전시실이 2층에 마련되어 있어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해 주었다.

강진은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유배생활하면서 실학을 집대성한 곳으로 널리 알려진 고장이 아닌가. 새로 지은 다산기념관에서 절망을 이기고 학문의 꽃을 피웠던 정약용 선생과 나눈 대화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전시물을 보며 “다산(茶山)은 어떤 사상가보다 많은 것을 다산(多産)한 인물이다.”라는 말이 실감났다.

다산초당에서 백련사로 넘어가는 산길이 있다. 백련사는 비를 맞



library.geochang.go.kr

한마음도서관이기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① 만복사지 ② 후속모임

아 더욱 윤기 나는 초록의 동백나무숲에 둘러싸여 있었다. 옛날에는 큰 절이었다지만 지금 백련사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로 강진만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뜰 앞에 선 해묵은 배롱나무의 아름다운 자태에 감탄하며, 절 앞쪽에 우뚝 선 만경루에 올라 누마루에 앉아 해설사로부터 백련사의 유래를 들어가면서 창밖을 내려다 보니 강진만 구강포 바다 풍경이 시원스럽게 한눈에 들어왔다. 이제 강진을 떠나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백련사 동백숲 속에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리탑을 못 본 게 아쉬웠다.

거창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획에도 없던 담양 소재원을 들렀다. 이번 탐방의 마지막 여정이다. 조선 중종 때 양산보는 기묘사화로 스승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이에 충격을 받고 벼슬길을 등지게 되었고 낙향하여 소재원을 세우고 일생을 마칠 때까지 이곳에서 은일자적인 삶을 보냈다. 소재원과 거창은 오래 전부터 인연이 닿은 곳이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회상하면서 1차 탐방을 마무리했다.

3차 길 위의 인문학은 이경재 강사가 ‘거창 문화에 술인 이야기’와 ‘판소리와 어울린 우리 문화’란 주제로 강연한 후, 10월 22일 강연 주제와 연관된 남원 일대를 탐방했다.

차 안에서 이경재 강사로부터 남원홍부마을 유래담도 듣고 판소리 한 대목도 들으면서 출발한 3차 길 위의 인문학 탐방은 명창 송홍록 생가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시작되었다. 별칭이 가왕(歌王)인 송홍록은 19세기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으로 판소리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동편제의 시조이다. 대문을 들어서자 판소리 공연하는 광대와 고수의 동상이 보이고, 그 뒤편에는 복원

된 송홍록 생가가 있었다. 그 오른쪽에는 여류명창 박초월 생가가 있었다. 박초월은 실제로는 순천 태생으로 남원에서 성장했다고 하니 사실은 생가가 아니다.

송홍록 생가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황산 대첩비가 있었다. 이성계가 고려 우왕 때 이곳에 쳐들어온 왜구를 전멸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웠다. 비석은 일제 때 일본인들이 파괴하여 파편 몇 개만 남아 있는 정도였으나 50년대에 다시 세웠다. 파편은 비각 속에 누워 있었다.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계곡에서 이경재 강사가 뽑는 판소리 한 대목을 듣는 것은 이번 탐방에서 누린 또 다른 즐거움이자 흥겨움이었다.

남원의 별미 주어탕으로 점심을 먹은 후,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난 광한루원을 거닐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광한루원은 변함이 없었다. 변함없는 사랑을 나누는 춘향과 이몽룡처럼.

조선조 김시습이 지은 만복사저포기(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금오신화의 일부)의 배경이 된 고려시대 절터·만복사지. 임진왜란 때 불타 버린 절터에는 고려시대의 오층석탑과 석좌, 당간지주, 석불입상, 석인상 등의 유물과 초석만 남아서 만복사의 화려했던 지난날을 말해주고 있었다. 제행무상, 인생무상이런가.

3차 탐방의 마지막은 혼불문학관이 장식했다. 소설 ‘혼불’을 주제로 2004년에 개관한 문학관이다. 소설 속의 느낌과 정서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대하소설 혼불은 소설가 최명희가 17년 동안 집필한 작품으로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하고 불행했던 시기인 1930년대를 배경으로 나라를 잃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탐방 여행의 행복했던 순간순간을 한 자락의 추억으로 만들어 준 ‘2016 길 위의 인문학’과 이별했다.

내년에도 인문학 여행을 하고 싶다. 내년에도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거창군민들을 불러주길 바란다.

2016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취미와 여가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군민의 힘을 키운다”는 모토 아래 독서 ·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였으며, 도서관 인프라를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 기획에 힘을 기울여, 문화로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도서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유아 강좌 북스타트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회원가입(책 꾸러미 지급)과 북스타트 특강 등의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는 어릴 때부터 도서관 시설을 활용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책읽기 습관 형성은 물론 유아들에 대한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어린이 강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한한 ‘창의성’ 과 ‘생각의 힘’ 을 키울 수 있도록, 재미있는 글쓰기 등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library.geochang.go.kr

한마음도서관이기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강좌



독서리더 양성교육

신규 사업으로 「독서리더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2016.9.27.~ 12.1일까지 총 20회의 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책을 매개로 한 독서기반의 맞춤형 독서리더 양성을 목표로 독서리더 6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서리더 6명은 도서관과 연계한 독후활동 및 문화체험을 전달하는 재능기부자로서의 역할 담당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독서활동 네트워크의 매개자로서 독서문화 활성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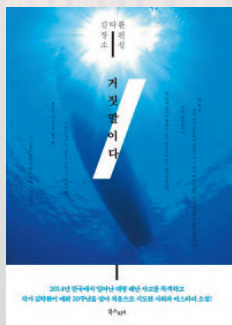


찾아가는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들을 직접 찾아가서 독서의 즐거움과 도서관과 친해지는 기회 마련을 위해 총 7개 기관을 찾아다니며 300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내 경제 · 교육 · 문화적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활동이 이루어낸 도서관의 쾌거입니다.



사서들이 권하



거짓말이다

김탁환 | 북스피어

우리 시대, 잃어버린 작가 정신을 되찾게 해준 귀한 소설 작가는 시대에 소명해야 한다



종의 기원

정유정 |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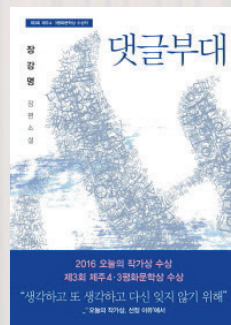
아무런 군더더기 없이, 오직 단 하나의 테마를 향해 돌진하는 ‘초월의 미덕’이 돋보이는 날 선 이야기



흰

한강 |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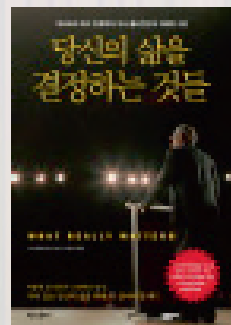
하얀 것을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색에 대한 아름다움 동시에 작은 감동을 안겨 주는 책



맏글부대

장강명 | 은행나무

“장강명의 글은 소설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몰입시킨다.”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들

아서 클라인만
북로그 컴퍼니

하버드대 최고 인류학자 아서 클라인만의 위대한 수업



동주

이준익 | 한국

어둠의 시대, 평생을 함께 한 친구이자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윤동주와 송몽규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더 헌트

토마스 빈터베르그
덴마크

사회 공동체의 집단 본성을 과감하게 드러내며 전 세계를 사로잡은 최고의 수작



45년 후

에릭 라티고 | 영국

로맨틱한 결혼 45주년 파티 준비에 여념이 없던 케이트(샬롯 램플링)와 제프(툼 커트니) 부부에게 남편 첫사랑의 시신이 알프스에서 발견되었다는 편지가 도착한다.



미 비포 유

테아 샬록 | 미국

6년 동안이나 일하던 카페가 문을 닫는 바람에 백수가 된 루이즈(에밀리아 클라크)는 새 직장을 찾던 중 촉망 받던 젊은 사업가였던 전신마비 환자 월샘 클라플린의 6개월 임시 간병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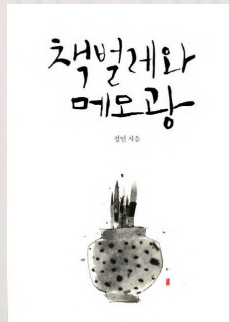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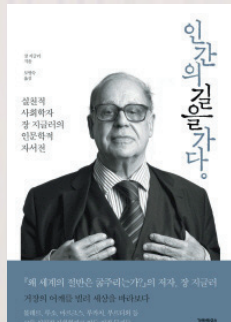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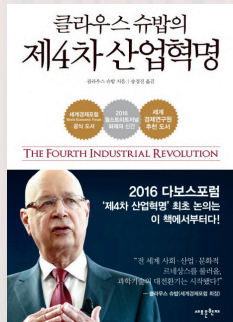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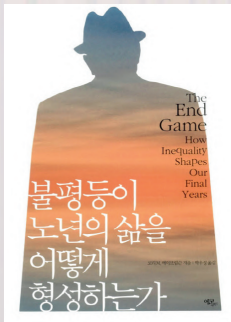


브루클린의 멋진 주말

리처드 론크레인 | 미국

40년 묵은 이스트 빌리지 아파트가 팔리기를 기대하는 뉴욕 노부부의 평소와 다른 주말 이야기

하는 책 & 영화



불평등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코리 M에이브러슨
에코리브르

노인의 다양한 경험과 욕구에 대한 이해, 관계망의 확대 등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 제시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
새로운현재

디지털 기기와 인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융합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의 길을 가다

장 지글러 | 갈라파고스

실천적 사회학자 장 지글러의 인문학적 자서전

책벌레와 메모광

정민 | 문학동네

독서와 기록에 미친 옛사람들의 이야기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 | 문학동네

한직 부장판사인 문유석이 진단한 한국사회의 국가주의적 집단주의적 사회 문화를 신랄하게 파헤친 책이다



클로리데이

최정열 | 한국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친구 웅비, 상우, 지공, 두만은 입대하는 상우의 배웅을 위해 오랜만에 뭉쳐 여행을 떠난다.

미라클 프롬 헤븐

패트리시아 리건 | 미국

절망 앞에 찾아온 희망의 기적. 한 가족에게 찾아온 믿을 수 없는 감동 실패.

클랜

파블로 트라페로
아르헨티나, 스페인

80년대 초반의 위태로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곤 한다.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

피에로 메시나 | 이탈리아

이탈리아 시칠리아, 고요한 대저택에 살고있는 안나. 어느 날, 아들 주세페의 여자친구 잔이 찾아오지만...

바다의 노래

툼 무어 | 아일랜드, 벨기에

전설 속 요정들과 함께 부르는 신비로운 노래. 마법에 걸린 동생을 구하는 오빠 벤과 강아지 쿨의 가슴 두근거리는 모험이 시작된다!

행복을 더하는 한마음도서관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독서를 통해 행복한 삶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책장 속 꺼내 보지 않은 책들을 기증받아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의 맛’ 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① 한마음도서관 야외공원에서 책 나눔, 행복더하기 행사.
② 한마음도서관 내부에서 진행 중인 책 나눔, 행복더하기 행사.

『책 나눔, 행복 더하기』 운영

한마음도서관에서는 도서를 기증 받아 매월 셋째 토요일 『책 나눔, 행복 더하기』 행사를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까지 1970권의 도서를 기증받아 일부는 도서관에 소장(등록)하고 나머지 도서는 행사에 이용, 판매수익금 1,869,000원을 ‘아림1004’에 기탁하였습니다.

12월부터는 판매수익금 전액을 거창의 교육발전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거창군장학회’에 기탁할 예정입니다. 4월 도서관주간과 10월 독서의 달에는 행사 홍보 및 도서관 행사와 연계하여 책 읽는 공원(분수대 앞)에서 확대 운영하였고 군민들의 관심과 함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책 나눔, 행복 더하기』 운영이 도서관 책 장터로 자리 잡아 도서 나눔 문화가 일상화되고 군민의 독서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ibrary.geochang.go.kr

한마음도서관이기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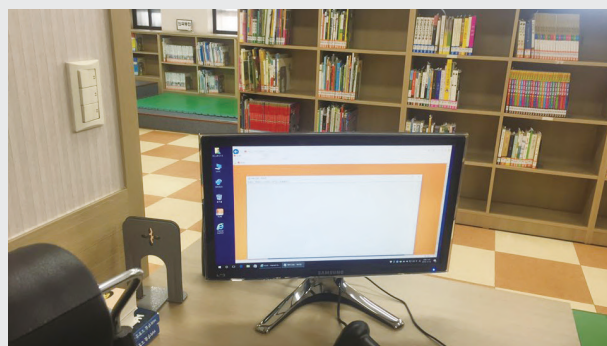
현재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가조면 작은도서관, 거창읍 새마을 작은도서관, 소만 작은도서관, 숲속 작은도서관, 큰바위 작은도서관, 참살이 작은도서관, 코아루 나눔도서관으로 총 7개가 등록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하여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동네 사랑방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이며,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 가조면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

한마음도서관과 가조면작은도서관 간의 상호협력망 구축을 통하여 도서자료 공유 등 이용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2.19(월) 상호협력망 구축 완료에 따른 행사를 가졌습니다. 도서관 간 상호연동이 가능한 상호협력망 구축으로 가조면민들은 한마음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한마음도서관에서 보유중인 12만권의 도서를 대출 · 반납 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도 가능합니다.



큰바위작은도서관 개관

큰바위 작은도서관은 거창군 위천면 소재지의 작은도서관으로 6월 23일자로 등록되었습니다.

큰바위 작은도서관은 지난 12.3(토) 위천면민과 초중고생 100여명이 함께 조출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큰바위작은도서관을 이끌어 갈 안현 목사님은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도서관 마을'을 이루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에티켓

도서관은 이용고객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 규칙과 예절을 실천하면 편리하고 쾌적한 도서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책과 시설물은 소중히 다루고
이용합니다.**

- 책에 밑줄을 긋지 않습니다.
- 책을 찢거나 접지 않습니다.
- 책에 얼룩을 묻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휴대폰 사용을 자제합니다.
- 조용히 합니다.
- 반려동물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모든 자료실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음료 및 샌드위치나 김밥 등
모든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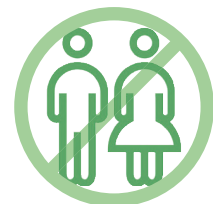
**도서관에서는 위험한 장난을
치거나 뛰지 않도록 합니다.**

- 뛰거나 장난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신간 및 예약도서
노쇼 하지 맙시다.**

- 예약취소 전화 주세요.



**도서관에서 지나친
애정행위 삼갑시다**

-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주는
언동은 주위사람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신발은 신발장에 보관합니다.

- 어린이자료실에 들어갈 때
정리정돈하며 깨끗하게
이용해주세요.



좌석은 1인1석 이용합니다.

- 1인 1석을 이용하고,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다음 이용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합니다.



장애인석은 자리를 비워둡니다.

- 몸이 불편한 분들을 배려해
장애인석은 자리를 비워둡니다.



library.geochang.go.kr

한마음도서관이기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
책 읽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책 읽는 가족은 아름답습니다.
책 읽는 사회를 만드는 도서관은 아름답습니다.
”

데스크 직원에게
신분증 제시

안내에 따라 PC에서
회원가입신청

본인인증
(휴대전화 또는 i-pin 본인명의)

데스크에서 추가입력
(아이디)입력

회원정보 입력

회원증발급

※회원가입절차

- 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내 회원가입 PC 이용
- 데스크 직원에게 신분증 제시 → 안내에 따라 PC에서 회원가입신청 →
-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i-pin) → 회원정보 입력 →
- 데스크에서 추가 정보(아이디 등) 입력 → 회원증 발급

구분	회원정보입력시	구비서류
만14세 미만	본인인증 + 법정대리인 동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보호자동반 (신분증지참)
만14세 이상	본인인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경상남도 거주자가 아닐 경우 관내 소재의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지참

※공공 아이핀 발급 방법

- ① 공인인증서
- ② 주민등록확인시스템
- ③ 읍/면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등 3가지 본인인증 수단 중
 - ※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공공아이핀 발급이 가능 합니다.
 - ※ 단 14세 미만 아동은 아이핀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동반(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한마음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해 주신
고마운 분들입니다

2014년 기증자

- 한국도서관협회
- 박재은
- 김혜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고흥군수
- 위천향토사연구회
- 경남발전연구원사회여성
연구실
- 박순영
- kb국민은행
- 차성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사단법인 행복한마을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법무부법질서선진화과
- 문화체육관광부
- 송철수
- 이공순
- 울산박물관
- 주옥희
- 정연숙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국가인권위원회
- 옥진숙
- 국립민속박물관
- 박래득
- 노유정
- 김회군
- 운주사
- 문학동네
- 이슬
-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
연구원
- 이완규
- 오세윤
-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
기록과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한림출판사
- (주)케이코믹스
- (주)재승출판
- 이선희
- 권연주
- SK텔레콤PR실
- (주)엔씨소프트
- 박정아
- 장서영
- 안도원
- 창녕군청
- 황명희
- 전미진
- 신경진
- 김안과병원
- 신미경
- 김상호
- 신가희
- 정동식
- (주)도서출판점자
- 배수민
- 이강균
- 정한영
- 기정아
- 거창박물관
- 박혜진
- 이지연
- 곽은숙
- 전영애
- 이옥주
- 전기환
- 신진우
- 국립김해박물관
- 신만식
- 일리
- 김옥순
- 손금희
- 경상남도문화예술과
- 김태섭
- 독립기념관
-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 한국문인협회 거창지회
- 월간조선
- 백신종
- 안진영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2015년 기증자

- 한국출판협동조합
- 대신서점
- 정태정
- 김소연
- 이종병
- 이종인
- 김병찬
- 거창박물관
- 우정문고
- 전미진
- 정삼영
- 송철수
- 국립민속박물관
- 김은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도서출판 역사공간
- 현대시문학
- 자음과모음
- 문화체육관광부
- 백인숙
- 김옥경
- 거창YMCA
- 경남은행
- 범어도서관
- 대한줄넘기협회
- 하주희
- 신은경
- 세종서적
- 김주영
- 권기범
- 기정아
- 아모르문디
- 고상원
- 전원문화회
- kb국민은행
- 김효정
- 김진희
- 박인환
- 김서영
- 고하송진우선생
기념사업회
- 월명사
- 오기수
- 이응훈
- 문상식
- 이은정
- 최순미
- 박인숙
- 김종신
- 김연주
- 유선희
- 이유현
- 김준(yes24)
- 곽찬호
- 문학동네
- 기쁨병원
- 이만방
- 이옥진
- 센트랄(경남도청)
- 국회도서관
- 정완수
- 윤혜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국수력원자력
- 서울시설노원사업장애인
복지관
- 박상준
- (주)능률교육
- 조호경
- 윤정란
- 김시영
- NH토지주택박물관
- 전미정
- 강인영
- 김병주
- 거창군문화관광과
- 조영진
- 최성열
- 한국도로공사
(거창, 고령지사)

2016년 기증자

- 국립민속박물관
- 경남도민일보
- 핵소미아
-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 오성옥
- 조갑제닷컴
- 조계자
- 문예바다
- 김용수
- 국가보훈처공훈심사과
- 시대정신
- 나남
- 한국문인협회거창지회
- 황거북이
- 이명우
- 비블리아
- 김미영
- 강혜민
- 해밀도서관
- 법원도서관
- 거창문화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김종현
- 이성희
- 강태민
- 정혜경
- 박성임
- 강인영
- 보림출판사
- 최성열
- 이유경
- 전우문화사
- 천재교육
- 김영선
- 신미경
- 농촌진흥청
- 국립암센터
- 도서출판아시아
- 김세훈
- 한국유도단자회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거창군청행정과
- 화성사업소
- (주)능률교육
- 정미영
- 원광디지털대학교
- 박형규
- 김현순
- (주)에듀윌
- 하은영
- 전수정
- 권은미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임양희
- 지주미디어
- 박재은
- 황선영
- 신성범
- 정봉길
- 옥진숙
- 이승만박사가기념사업회
- 류준식
- 박희곤
- (재)관정이중화교육재단
- 김은경
- 거창경찰서
- 이흥기
- 김봉우
- 김미영
- 정소연
- 이상호
- 이영규
- 김기창
-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 준치가시
- 한국도서관협회
- 백창호
- 진명희
- 김연우
- 박선미
- 서정순

도서관 이용안내

이용시간

구분	1층 자료실	2층 종합자료실	3층 자유열람실
평일	09:00 ~ 18:00	09:00 ~ 22:00	08:00~22:00
토/일요일	09:00 ~ 17:00	09:00 ~ 17:00	08:00~22:00
금요일 법정공휴일	휴실		09:00~18:00

도서 대출/반납

- 대출권수 : 1인 5권
- 대출기간 : 14일(반납예정일 이내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 가능)
- 연 체 시 :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
- 참고사항
 - 동일도서의 재대출은 일주일(7일) 후 가능(반납당일 재대출 불가)
 - 반납연기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 도서 분실 및 훼손 시 동일도서로 변상

야간 도서대출 신청

- 이용자격 : 한마음도서관 회원
- 신청시간 : 09:00 ~ 16:30(자료실 운영시간 내 16:30까지만 신청 가능)
- 이용시간 : 18:00 ~ 22:00(평일: 종합자료실 / 주말: 행정실)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도서 소장 및 대출여부 확인 → 야간대출 신청 → 도서관방문(회원증 확인 후 대출)
- 신청문의 : 종합자료실(940-8480), 어린이자료실(940-8478)

※ 당일신청 당일대출만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도서 예약 신청

- 신청도서 : 대출중인 도서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이용방법 : 홈페이지 도서 검색 → 대출여부 확인 → 예약버튼 클릭

